0310 필기

안녕하세여~

FIRST LESSON : PIANOFORTE

Pianoforte의 줄임말(이태리), 3개의 페달과 88개의 건반으로 구성됨

건반을 누르면 연결된 해머가 각 현을 때려서 낸 소리를 공명 및 증폭시키는 원리를 지닌 건반악기 (타현악기)

그랜드와 업라이트(UPRIGHT) - '똑바로 세워진'

피아노의 역사 : 현악기의 기원과 맥을 같이 함, 치터, 덜시머, 모노코드라는 단순한 악기로 시작되었으며, 15~16세기 경 클라비코드, 하프시코드처럼 건반을 사용하며 건반악기로 발전됨

ㄴ 덜시머 : 국악의 양금같은 존재, 현악기에서 시작한 것과도 같음 (특히 큰 영향)

건반악기이기 전에 현악기였기 때문에, 피아노 인사이드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님

찰현악기 : 해금 아쟁, 서양의 STRINGS

발현악기 : 기타, 하프, 거문고, 가야금 등등등등등 etc....

피아노의 구조

보면대Ablage - 뭔지 알지?

선반oberer Rand - 보면대와 같이 악보를 기대 놓을 수 있는 부분 (보면대 바로 밑에 있는 그것)

건반 뚜껑Deckel - 뭔지 알지?

건반 - ㅇㅇ

건반대Untertastatur - ㅇㅇ

건반보조목 - 양 끝 건반의 끝쪽에 바치고 있는 나무 부분

페달 - Soft(Una Corda) - 음량을 격하시키는 그것 , Sostenuto-소리를 유지시키는 페달 , Sustain(Damper) - 가장 많이 쓰는 그것

(내부)

튜닝핀 - 조율을 할 수 있는 톱니바퀴 부분

아그라프 - 현을 고정시키면서 각 페달에 맞게 모양을 맞춰주는 고정장치 역할

댐퍼 - 페달 부분

현 - 보통은 댐퍼 뒷쪽 부분에 있는 줄을 현이라고 부름

프레임 - 현 위에 있는 쇠

브릿지 - 현을 고정시켜주는 쇳부분

*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기법이 있고(저음역), 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덜 효과적인 기법들도 있을 것(고음역)

*댐퍼의 양쪽으로 소리가 다름, 기법들을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악기의 구조와 명칭들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할 것

피아노를 활용한 현대주법

1. 글리산도 : 높이가 다른 두 음을 미끄러지듯 빠르게 올리거나 내려서 연주하는 기법, 손톱샤용

-불레즈 12 notations pour piano (1946) No. 2 - Check it out! - Orchestration도 있다고 하십니다.

-여러 악기들이 역시 가능 (Strings, Trombone)

-피아노의 경우 손톱 뿐만 아니라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글리산도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존재

-피아노의 기보법 경우에는 흰 or 검은 건반을 사용하는 경우를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~

ㄴ 위에 사용된 불레즈의 경우는 그것을 확실하게 표기해줌 - Check it out!

2. 클러스터 : 반음 관계의 연속된 음들이 동시에 연주되어지는 화음

-Henry Cowell : 클러스터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, 활용하여 작곡을 가장 많이 한 작곡가

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구분에서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

-인사이드 클러스터를 자주 사용함 최근에는

-Beat Furrer(베아트 퓨ㅜ러) phasma : ??

-클러스터 첫음과 끝음의 임시표를 다르게 하면 Cluster Chromatique

*Stockhausen의 Klavierstuck X - 글리산도와 클러스터로 떡칠한 곡

-그래픽틱한 곡선으로 글리산도를 표현할 수도 있음

ㄴ하지만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정확한 타이밍, 음정 간격을 반드시 세밀하게 표기해야 함

3. 페달

*1 : 배음에 의한 잔향 : 음을 누르기 전에 '몇몇 건반을 손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미리 누른 후' Sos ped를 통해 이 상태를 '지속'시킴.

이 상태에서 음들을 연주할 경우 기본적인 건반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 외에 묵음의 배음이 더해져 다양한 잔향이 생성됨.

ㄴ소리가 안나게 건반을 누름 - Sost Ped를 밟 - 음들을 뚫음 - Damper가 떠있는 상황이 됨 - 그 상황에서 음들을 누르면 떠있는 Damper 사이로 소리가 스며들음 - 추가로 누른 음들과 함께 배음들이 잔향처럼 울려퍼짐

-이 주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 작곡가 : Helmut Lachenmann (헬무트 레인멘)

-주로 음들을 다이아몬드로 표기 - 음들 사이를 클러스터처럼 표기 - Sost Ped를 표기 (영어 표기에는 Mutely를 표시함)

-한국어로는 묵음 클러스터라고도 말함

Gerard Pesson의 No-ja-li (2011) 참고

- 그러나 다른 음들을 치다가 묵음 클러스터로 누른 음을 다시 누르면 Sustain ped를 누른 것처

럼 음들이 유지가 된다.

Ex) Mark Andre - Contrapunctus

표기법에 애매한 부분 : 클러스터와 음들을 동시에 누르게 표시함으로써 연주자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 -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지?

-묵음 클러스터는 활용 방법에 따라 표기를 더 해주는 게 좋음

묵.클 후 음들을 누른 후 잔향을 더 남기고 싶다면 'ca. 4' 등 잔향을 느낄 수 있게끔 시간을 표기해주면 좋음

Bass 처럼 남기고 싶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듯?

4. 본체를 이용한 주법

*1 : 귀로 효과 : 흰 건반, 검은 건반의 '겉면'만을 문지르는 글리산도 - 타악기 귀로 같은 소리 연출 가능

다양한 도구 사용 가능 : 손톱, 손바닥도 가능

프란체스코 필리다이 - Tocaata 참조

음정의 구조가 아닌 타악기 적 활용기법이기 때문에 타악기 보표를 사용해야함. 리듬만 표기해주면 ^^ 일정 범위 역시 사용

*2 피아노 본체를 직접 두드림 : 제시된 부분을 손이나 도구로 직접 두드리는 주법으로서 피아노에서 타악기적 소리 연출

* "mf" - 액션 다이나믹 - 따움표 역할은 긴장도, 액션 역할을 함. mf, f 정도로 활용해야 그나마 소리가 들림

ㄴ airsound, keyclick 같은 곳에서도 사용함 (목관악기 등) - 더 좋은 악기일 수록 좀 더 안들림, 적극적인 다이나믹 사용 필요시

5. 피아노 안에서의 주법

*1 : 하모닉스 : 손으로 댐퍼 뒤쪽, 혹은 위쪽의 현을 가볍게 누를 것. 저음일 수록 효과적

완전 4도, 장 3도의 하모닉스 영역이 다 다름

*2 : 하모닉스 글리산도 : 손으로 현을 위쪽으로 문지르며 연주할 것

*3 : 글리산도 : 인사이드 글리산도, 아는 그것~

*4 : 피치카토 : 손으로 직접 현을 뜯기~ (페달을 밟아줘야 소리가 잘 들림)

*5 : 피치카토와 유사한 소리 : !소리만 비슷하고 내는 방식은 다름, 손으로 아크라프 뒤쪽(위쪽) 부분을 약음시킬 것 (저음역대 효과적)

*6 : 귀로 효과 :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튜닝핀 등의 부분을 문지를 것

-네모난 음표 : 뮤트로서 작동함 (혹은 동그란 음표에 위에 +표시를 해줌)

*7 : 무음의 타악기적 소리 : 손으로 현을 직접 누를 것

*8 : 문지름(arco) : 얇은 플라스틱 줄, 실(치실도 자주 사용) 등을 현 사이에 넣어 문지를 것

*9 : 클러스터 : 손바닥 등으로 현 위를 직접 칠 것

*10 : 도구를 활용한 현의 울림 : 트라이앵글채, 피크, 타악기 말렛, 망치, 유리병(유리가 긁히는 소리가 남), 브러쉬(스네어 재즈), 탁구공 등을 이용하여 현 위를 문지르거나 칠 것

6. 장치피아노 (prepared piano) : 현 위나 사이에 볼트, 나사, 뮤트, 고무, 지우개 및 기타 물체를 배치하여 소리가 일시적으루 변형되게끔 사전에 설치함. 현이 온전히 진동하지 못하며 다양한 음향이 발생됨

부착된 물질의 재질과 생김새, 부착방식에 따라 소리들의 변화가 결정되어짐. 악보에 기입 시 제시된 현과 위치, 어던 재료를 설치할 것인지 상세히 할 거서것아거민ㅅ옻개ㅑㅐㅗ매ㅐㅇㄴ.

-존케이지의 대표적인 기법 , 그의 우연성 음악과 밀접한 관련 - 무슨 물체를 끼우느냐에 따라 예

측할 수 없는 소리를 발현 - 현대음악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사건

ㄴ추후에 전자음악에 까지 파장~

0317

3월 22일 00시까지

- 1분 이상 3분 이하

- 최대한 다양한 현대음악 기법을 사용할 것!

-moonheelee....

-CLUSTER (Guiro) - 면장갑을 끼고 치면 글리산도를 많이 쳐도 문제 없이 연주할 수 있음

- 건반 뚜껑을 내려서 치는 소리가 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홀의 스타인웨이 같은 좋은 피아노들은 안전장치 때문에

원하는 소리를 못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

- 클러스터 글리산도는 그래픽 악보 처럼 표기할 수도 있다.

- Sustain Pedal의 기법 : 원하는 음들을 FF로 스타카토로 연주해서 빠르게 친 직후 페달을 눌러주면 여운만 남는데 이 소리를 캡쳐 할거면 하고 아님 말고~

- Sustain Pedal만 강하게 밟고 강하게 땔 수 있다. , Sustain Pedal만 밟고 연주를 하면서 una corda를 강하게 밟고 때면서 연주하는 방법도 있다.

-Sos------> 언제까지? 끝나는 표시가 나올 때까지 (강하게 끝내고 싶으면 악센트 ㄱㄱ)

+Ped---------->

-인사이드 피치카토는 카드나 기타 피크로 하면 훨씬 더 날카롭다.

-인사이드 피치카토로 정말 뜯는 소리만을 원하면 피크가 더 좋고, 그 외의 많은 잔향을 원한다면 카드가 더 좋다.

-카드로 저음 인사이드 글리산도를 하면 상당히 저음의 날카로운, 너분한 소리가 난다.

-말렛으로(플라스틱) 인사이드 글리산도를 하면 날카로우면서 짱짱(*)한 소리가 난다.

-망치로 인사이드를 연주하고 싶으면 반드시 프레임이나 튜닝 핀만을 쳐야 한다. 현을 쳤다간 매우 위험하다.

-브러쉬로 문지르면 조금 옅은 글리산도가 나고, 거품기 같은 자동 진동기능이 있는 물건은 좀 더 하프+하프시코드 소리가 난다.

-고무텍 같은 물건으로 현의 특정 위치에다 붙여서 건반을 누르면 하모닉스 소리가 나기도 한다.

-종이테이프를 현에다 붙이면 조금 더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.

-(E-Bow) : 현이 녹슬면 소리가 안난다. (굉장히 영롱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) (피아노가 녹이 슬면 어떻게 대처를 해왔나?)

ㄴ 대체로 시간을 적어놓는다 "ca. 30" 등, 가볍게 얹는 거로 생각을 해야지 정확한 리듬을 적어놓는 건 큰 의미가 없다.

ㄴ 저음에는 소리가 안난다

-고무 : 현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서 소리를 내면 뿌드득거리면서 현의 날카로운 고음 소리가

난다.

ㄴ 역시 저음에서는 소리가 안난다. 현이 굵기 때문

-슈퍼볼(말렛의 종류) : 방귀 뀌는 소리(건반대에다가 문지르면 나는 소리) ,

-음표 표시

네모 : muted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.

X표시 : 타악기 적인 움직임을 원할 때 가급적 사용하는 것 (시작하고 싶은 음고에 표시를 한다)

삼각형 : 특정 음정의 가능한 한(바이올린, 플룻, 성악 등 개인차가 있는 악기들의 고음역대) 가장 높은 음으로 하고 싶을 때

역삼각형 : 관악기 등의 Slap

다이아몬드 : 하모닉스, 묵음 클러스터의 오버톤에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 (사분음표까지는 검은색, 이분음표부터는 흰색)

-인사이드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악보를 보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사선으로 보면대를 놓거나... 아이패드 악보를 준비하거나...

-헬무트 라인만 - Guero

정사각형 : 은 건반의 가운면을 글리산도

동그라미 기호의 검정 흰색 : 검정 건반과 흰건반을 동시에 글리산도

검정색 동그라미 : 는 검정 건반만 글리산도

직사각형의 작은 네모 : 는 튜닝핀을 피치카토

동그라미에 줄쳐져 있는 것 : 은 핀과 줄받침 사이를 피치카토

마름모에 팔분음표 꼬리 : 흰건반 자체를 피치카토 하라는 것

직사각형에 꼬리 있는 것 : 피치카토

음꼬리 있는 건 : 다 피치카토

꼬리 따라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점 몇 개 찍혀있는 경우는 음 갯수

4번째 페이지 꾸밈음 : 건반 커버를 치고 직사각형으로 넘어가라

묵음 클러스터 : sostenuto페달만 눌렀을 때와 sustain과 같이 눌렀을 때의 잔향 차이가 많이 남

sustain을 눌렀을 때 잔향이 sustain만 눌렀을 때와 비교했을 때 75%정도?